

SEE ING

Another way of Seeing

서울 종로구
북촌로 5나길 19

Tel. +82_02_733_1996

info@artblind.or.kr
artblind.or.kr
facebook_anotherwayofseeing

SEE ING

Another way of Seeing

우리들의 눈

ART_Lab
with the Blind

Another way of Seeing

우리들의 눈

01

Education

시각장애 미술교육의 길을 열다

Gallery

전시를 만지다

Project

관습에 도전하다

Program

보는 것을 넘어서 보고 느끼다

Book

오감으로 만지고 읽다

Network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길

발행처 : |사| 우리들의 눈
기획 : |사| 우리들의 눈
디자인 디렉터 : 박영훈
디자인 : 원오원 디자인 / 이은정
인쇄 : 한동문화사
지원 : 아산나눔재단

Publisher
Another way of Seeing

Design Director
Bak Young hun
One O One Design
Lee eun jeong
Printed in Korea by Han_Dong
Sponsor_ The Asan Nanum Foundation

Another way of Seeing

ART_Lab

Another way of Seeing

<우리들의 눈>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예술가들이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ART_Lab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경계 없는 융·복합적인
미술교육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APP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other way of Seeing

인간의 삶 자체가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눈'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선한 열망을
결집시키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지금까지처럼
갤러리 공간에서 큐레이터들에 의해
기획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정말 밑으로부터 솟아나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 미술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계를
아주 매력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시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인범 | 미술평론가, 상명대학교수

미술교육의 길을 만들다.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미술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합니다. 전국 맹학교를 대상으로 유치부에서 초, 중, 고등부 수업에 이어 미술대학 진학과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까지, 한국 사회에 이전에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의 미술교육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꼭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누군가는 나서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센스 있는 시각장애인, 미적 감각이 뛰어난 1시각장애인들이 한 명씩 등장할 것입니다.”

권유진 | 충주성모학교 졸, 현 세종누리학교 특수교사



비 온 후 환하게 빛나는 무지개 착추
박소현 | Mixed Media, 한빛맹학교

Art Class for the blind school 맹학교 미술수업

예술가들이 찾아가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맹학교 미술수업은 감각발달과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각장애학생들이 이미지를 창작하는 실험의 장이 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Teaching Artis와 1:1의 수업방식으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각 / 조향 / 패션 / 사진 / 도예 /
드로잉 / IT / 미각수업 등 진행

Support for studying in art college 미술대학 진학지원

2013_2014 | 2년 간의 지원을 통해
2015년 대구대학교 회화과에 합격

작가인큐베이팅
2016 | 4년 간의 멘토링을 거친
첫 번째 작가로 김정식 작가 전시

「손등으로 느낀 빛 그림자로 그린
세상」 사진 展

The Road Not Taken Project 가지 않는 길 프로젝트

시각장애 학생의 미술대학
진학과 시각장애를 가진
예술가의 탄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술전문교육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의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명
으로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길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Archive of Art Class 우리들의 눈 자료집

시각장애 미술교육 관련 학술자료집
제작, 세미나 및 포럼 개최와 국제
포럼의 패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맹학교 수업현장을 담은
미술교육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각장애
미술교육의 연구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작가드복을 제작 보급하는
예술도서관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로서
실명이 되고도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작가의 예술세계를 기록해
보르헤스도서관이라 이름지었다

누구나 만지매 있는

想像力

Another Way of Se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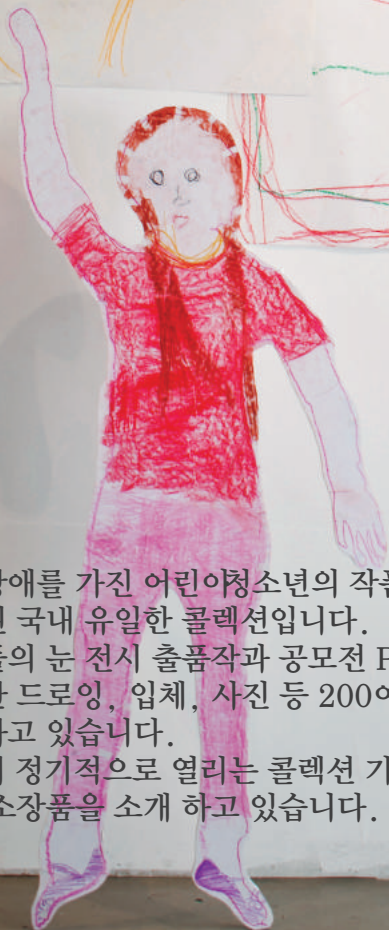
우리들의 눈입니다



**Another way of Seeing,
Touch Art Gallery**

갤러리에서는 매년 5-6회 전시가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시각장애와 미술을 주제로 한 워크숍, 세미나, 소강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 Collection, 1998



Another
way
of
Seeing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아청소년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컬렉션입니다. 우리들의 눈 전시 출품작과 공모전 Prizm Prize에서 수상한 드로잉, 입체, 사진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컬렉션 기획전과 외부초대전을 통해 소장품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미술공모전 프리즘 프라이즈

Prism Prize, 1998

우리들의 눈에서 주최하는 전국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미술상입니다.

국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미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Art & Busin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입상작품은 우리들의 눈 정기전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러 전시를 통해 소개됩니다.



네이버스 갤러리

Neighbors Gallery, 2008

매년 5월 북촌 주민과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지역의 이웃들과 멀리서 오는 장애인들입니다.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가 열리며, 지역 상가에서 후원하는 음식으로 파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시각장애인과 북촌주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끼리만지기 프로젝트
광주우치동물원, 2010

관습에 도전하다.

시각장애 학생들과 예술가들이 ‘본다는 것에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코끼리를 통해서 탐색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땅 위의 가장 큰 동물 코끼리를 보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서, 그 과정에서 코끼리를 만나보는 추억도 갖고 부족한 스케일 감각에 도전해 보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이 필요 없다는 세상의 편견을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인천코끼리
인천해광학교학생들과 아티스트 공동작, 2009

코끼리만지기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눈 뜬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 특히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미술이 눈으로 하거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어떤 상투적인 이해방식을 전복시킨 힘에서 예술적인 가능성이나 상상력이 싹튼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코끼리만지기’는 시사하는 점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범 | 미술평론가, 상명대학교수

Another way of Seeing ART_Lab



보는 것을 넘어서 보고 느끼다.

빛과 어둠만 보는 눈
50cm내의 것만 보는 눈
시야의 반이 어둠인 눈
뿌옇게 보는 눈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는 눈
그리고
원시, 근시, 사시...
이 모두가 우리들의 눈입니다.

Glass Me! 불편한, 멋진 안경 만들기

‘타인의 눈으로 보다’는 부제를 가지고 ‘보다’를 창의적으로 체험하는 안경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눈이 모두 다르듯이 시각장애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안경의 프레임과 렌즈에 담아 만드는 창작 작업과 시야의 불편함을 체험하며 나와 다른 눈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가져보는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뮤지엄, 교사연수, 복지관 등의 참여 가능합니다.



뮤지엄프로그램

시각 장애인을 위한
뮤지엄 투어 프로그램과
촉각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2 한·일 국제 시각장애 학생 작품전
<우리들의 눈 展>
- 2 **리움미술관**
2005 시각장애인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 앤디워홀展
- 3 **국립민속박물관**
2003_2005 시각장애인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
2004 어린이 박물관 점자안내 브로슈어 제작
2012_2013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프로그램 촉각 매뉴얼
<점자도·문자도>제작 프로그램 진행
- 4 **서울시립미술관**
2012_2013 시각장애청소년 프로그램
- 5 **국립현대미술관**
2014_2015 과천관 촉각아트북<미술관을 만지다>,
소개앱(APP) <미술관을 듣다> 개발 및 오디오북 제작
- 6 **코끼리 주름 펼치다**
2015 <코끼리 주름 펼치다 展>,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블루메미술관(파주)



오감으로 만지고 읽다.



점자촉각아트북

Tactile art book, 2004_

시각장애인들의 이미지 학습을 위해 만지며 읽는 점자촉각아트북을 개발·제작하고 있습니다.

점자촉각아트북은 감각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오디오 북, 조향 장치 등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도서입니다.

보르헤스 도서관

Borges Library

보르헤스(Jorges Francisco Isidoro Luis Borges)는 20C 세계문학의 리더인 아르헨티나 소설가로 실명되기도 국립도서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뜻을 담은 우리들의 눈의 예술 도서관으로 점자촉각아트북 제작·보급하는 한편, 3D 프린팅, IT 등 기술과 접목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IT 교육교재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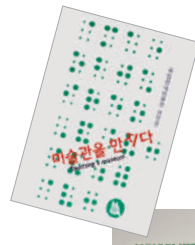
학습 교재

- 2014 TOUCH me, WEAR me
패션 점자촉각 아트북
삼성물산패션부문 후원
- 2016 점, 선을 만지다·한글을 만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



뮤지움 협업

- 2004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점자촉각아트
브로슈어
- 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미술관을 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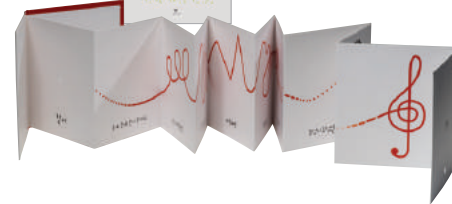
창작

- 2013 디자인을 만지다
1 Logo, 2 Ic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출판

- 2008 점이 모여 모여(엄정순),
나무를 만져보세요(송혜승)
책 읽는 손가락 시리즈, 창비



전시/워크숍

- 2004 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
- 2013_2015 손가락이 책을 읽다 展,
우리들의 눈 갤러리

전문가, 시민과 함께 하는 융합 프로젝트

ART_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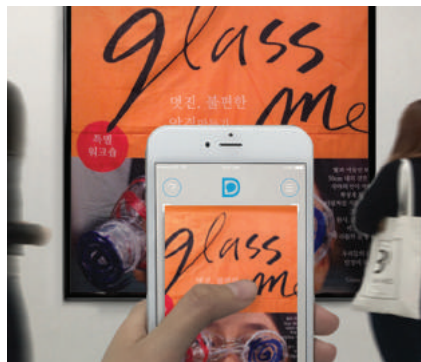
우리들의 눈의 비전과 활동을 지지하는 IT전문가,
심리학자,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들의
눈의 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예술, 기술의 만남

Art Tech with the Blind, 2009_

IT개발기술팀과 협업하여 미술수업교재의 디지털화와 전시감상 앱
(APP) 개발 및 촉각책과 함께 사용하는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APP 교재개발제작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자료 APP
두근두근 미술관 - 최신 스마트 폰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그림을 뮤지움에 전시할 수 있는 체험 APP
도슨트 Docent -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여 혼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미술관/이벤트 다국어 지원 APP



힘! 프로그램

Art program for adult
blind, 2012_

학교를 졸업한 성인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월2회 진행되는 아트프로그램입니다.
미술이 감각과 사고의 힘이 되길 기대하며 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미
술적 표현을 배우면서 취미활동과 더 나아가 전문직 진출의 가능성
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 인큐베이팅의 기회를 거쳐 사진작가로 데뷔한 참여자도 있습
니다.

프로그램 손 힘! 키우기 / 몸의 힘! 키우기 / 마음 힘! 키우기 / 입맛 힘! 키우기 /
다리 힘! 키우기 / 표현 힘! 키우기 / 후각 힘! 키우기 / 스마트 힘! 키우기

시민 아카데미

Public Lecture Program, 2016_

우리들의 눈이 기획한 시민 아카데미는
'본다'란 무엇인가란 본질적 질문을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찾아보는
열린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시각장애와 예술을 중심축으로 하여
우리사회에 규정된 틀을 벗어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삶으로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예술가의 강연과 시각장애인이 창조적
리더가 되어 진행하는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하나의 작은 점 같았던 질문은
시각장애인과 우리들의 눈이
함께 그려낸 선이 되어
우리 삶 본연의
근원적이고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의 실험은
지금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의 눈과 함께 해주세요.

Another way of Seeing

1 Glass me! 불편한, 멋진 안경 만들기 워크숍

나와 다른 눈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가져볼 수 있는 아트 프로그램

참여장소: 우리들의 눈 갤러리 및 참여대상 그룹의 특성에 맞는 장소

모집인원: 10명 이상

신청기간: 상시접수

2 미술공모전 <프리즘 프라이즈> Prism Prize

전국 시각장애 학생 대상 전문 미술공모전

참여대상: 맹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신청기간: 상반기 모집(3_4월)

3 성인시각장애인 미술워크숍 힘! 프로그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오감을 활용한 미술표현과 자기발견의 경험할 수 있는 미술워크숍

참여장소: <우리들의 눈> 갤러리

참여대상: 19세 이상 성인시각장애인

모집인원: 10명 이내

일정: 월 2회 토요일 14:00~17:00

1년 총 16회 수업, 평균 참가자 수는 10명 이내이며
서포터즈와 1:1 수업으로 진행한다.

info@artblind.or.kr

문의: <우리들의 눈>

+82 02_733_1996

우리은행 1005-801-261478

(사)우리들의 눈

AnOther
WAY OF
Seeing

|사|우리들의 눈

서울 종로구
북촌로 5나길 19

Tel. +82_02_733_1996

info@artblind.or.kr

artblind.or.kr

facebook_anotherwayofseeing

우리들의 눈

경복궁

삼청파출소

서울시립
정독도서관

안국역

아트선재센터

풍문 여자 고등학교

안국동 사거리